

THE UNITED

INCHEON UNITED F.C. 2015 THE OFFICIAL MATCHDAY PROGRAM OF INCHEON UNITED F.C.

TODAY MATCH



VS



인천유나이티드

전남드래곤즈

11.28(토) 오후 2시

인천축구전용경기장

INTERVIEW

Goodbye No.10
이천수

UTD NEWS

2015시즌 총 정리
이천수, 인천에서 3년
서포터즈 인터뷰

SPECIAL GIFT

이천수 브로마이드



A full-length portrait of Incheon United manager Kim Do-hoon standing on a grassy field with stadium seating in the background. He is wearing a grey suit, white shirt, and dark tie, with his hands in his pockets.

“2015시즌 힘의 원천, 팬 여러분”

인천유나이티드를 사랑해주시는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천유나이티드 감독 김도훈입니다.

먼저, 올 한해 우리 선수단에 열정적인 응원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올 시즌 인천유나이티드는 다른 팀보다 선수단 구성이 다소
늦어지면서 많은 팬분들의 걱정과 우려 속에서 출발했습니
다. 그러나 숏한 어려움에 마주칠 때마다 곳곳하게 앞으로 나
아갈 수 있었던 힘의 원천은 바로 팬 여러분이었습니다.
그 결과 여러분의 진심어린 사랑과 지지 덕분에 선수단은
2015시즌 FA컵 준우승, 리그 7위라는 성적을 거둘 수 있었
습니다.

저를 포함한 코칭스태프, 선수단 전원은 항상 경기장에 찾아
주시는 팬 분들은 물론이고 300만 인천 시민을 대표해서 뚝
다는 마음 가짐으로 매 경기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2016시즌에는 K리그 상위권 도약, FA컵 우승이라
는 더욱 원대한 꿈을 안고 팬 여러분과 함께하고자 합니다.

시민 여러분, 그리고 팬 여러분! 다시 한번 올 한해 보내주신
뜨거운 성원에 감사드리며, 내년에도 우리 인천유나이티드에
더 큰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천유나이티드 감독 김도훈



시작은 미약했으나 분명한 희망을 봤다. 다사다난했던 인천유나이티드의 2015시즌이 바로 오늘 마침표를 찍는다. 새로운 사령탑 김도훈 감독의 지휘 아래 늑대 축구라는 새로운 팀 컬러를 앞세워 올 시즌 K리그 클래식에서 파란을 일으켰던 인천의 2015년을 되돌아본다.

그 어느 때보다 추웠던 인천의 겨울

인천의 출발은 유독 추웠다. 주축 선수들이 대거 팀을 떠났기 때문이다. 안재준(안산)과 최종환(상주)이 입대를 했고 박태민, 남준재(성남), 이석현(서울), 구본상(울산), 문상윤(전북) 등이 새 동지를 찾아 떠났다. 감독 선임도 늦어지며 타 구단보다 늦게 시즌을 시작했다.

무주공산 속에 새 판을 짜야 하는 상황이었다. 새로운 사령탑으로 김도훈 감독을 선임했다. 또 박세직, 김인성(이상 전북), 권완규(경남), 박대환(강원) 등 미완의 선수들을 대거 영입하며 급한 불을 끄기 위한 노력을 이어갔다. 그러나 인천에 붙은 수식어는 “강등 1순위”였다.

기대이상 경기력 속 길어진 무승행진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인천의 경기력은 기대 이상이었다. 전북, 서울, 울산, 포항 등 객관적 전력이 앞서는 팀을 상대로 맞불작전을 놓아 승점 1점을 가져왔다. 하지만 승리는 없었다. 개막전 광주전을 시작으로 10경기 연속 무승 기록을 이어가며 2014년의 악몽을 떠올렸다.

시즌 초반 8경기서 인천은 6무 2패의 기록을 보였다. 분명 시즌에 앞서 생각했던 것보다는 기대 이상의 경기력이었지만 승리 신고가 길어지며 불현듯 1년 내내 치열히 강등권 경쟁을 하며 고전했던 2014시즌의 악몽이 떠올랐다. 이때만 해도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웠다.



FA컵을 시작으로 치고 올라간 인천

전환점은 FA컵 32강전이였다. 인천은 부천을 상대로 2-0 승리를 거뒀다. 약체를 상대로 한 승리였지만 선수들이 자신감을 상당 부분 회복했고, 이때부터 신나게 위를 향해 치고 올라갔다. 이후 인천은 대전, 제주, 부산에 연이어 승리하며 K리그 클래식 3연승을 달성해냈다.

그 밖에도 인천은 쉽게 지지 않는 축구를 펼치며 평균 이상의 흐름을 이어나갔다. 결국 인천은 전반기 동안 7승 9무 7패의 기록으로 중위권으로 도약하는데 성공했다. 또한 FA컵에서도 8강 진출에 성공하면서 희망을 이었다. 이때부터 축구팬들이 인천을 주목하기 시작했다.

목전에서 농친 상위스플릿과 FA컵

인천은 후반기를 맞아 유현 대신 김동석으로 주장 교체를 단행하며 새 출발을 모색했다. 후반기 초반 전남, 제주, 전북, 대전을 상대로 4연승을 거두며 분위기 반전에 성공했지만 마지막 5경기에서 1승 4패로 부진하며 결국 목전에서 상위 스플릿 진출 티켓을 제주에 내줬다.

인천은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 FA컵에서 고군분투했다. 전남을 꺾고 결승에 올라 창단 첫 우승 트로피를 손에 쥘 기회를 잡았지만 하늘은 인천의 간절함을 외면했고, 결승전서 ‘난적’ 서울을 상대로 잘 싸우고도 1-3으로 패하며 준우승을 거뒀다. 그러나 인천의 선전은 아름다웠다.

Goodbye No.10 이천수

“인천에서의 3년,
소중한 경험이자
인생의 밑거름”

No.10 이천수

생년월일 1981.07.09
신체조건 174cm, 65k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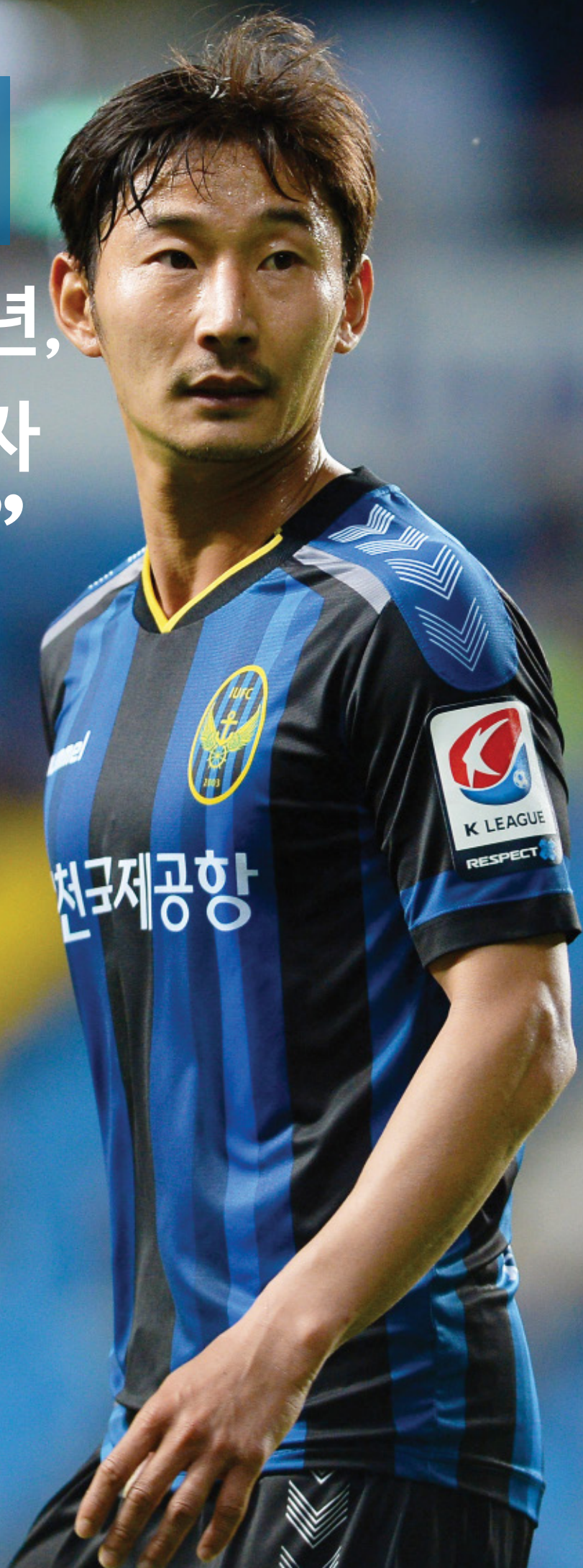
출신학교
부평동중 - 부평고 - 고려대

프로경력 <K리그 179경기 46득점 35도움>

2002 ~ 2003 울산현대
2003 ~ 2004 레알 소시에다드 (스페인)
2004 ~ 2005 CD 누만시아 (스페인)
2005 ~ 2007 울산현대
2007 ~ 2008 페예노르트 로트르담 (네덜란드)
2008 ~ 2009 수원삼성블루윙즈
2009 전남드래곤즈
2009 ~ 2010 알 나스르 (사우디아라비아)
2010 ~ 2011 오미야 아르디자 (일본)
2013 ~ 현재 인천유나이티드

대표경력 <A매치 78경기 10득점>

2000 AFC 아시안컵, 시드니 올림픽
2002 한일 월드컵, 부산 아시안게임
2004 아테네 올림픽
2006 독일 월드컵, 도하 아시안게임
2007 AFC 아시안컵





‘인천의 넘버텐’ 이천수. 그가 오랜 선수생활 끝에 고향인 인천에서 은퇴를 선언했다. 선수로서 종횡무진 활약했고, 인천에선 팀의 정신적 지주로 모든 선수의 롤모델이었다. 선수가 아닌 또 다른 모습으로 그라운드 위에 다시 설 것을 약속한 그는 이제 자신의 마지막 무대를 준비하고 있다.

Q. 2년 전 어려웠던 시기에 인천에 입단하셨었습니다. 당시의 마음가짐을 다시 한 번 회상해 보신다면요?

임의 탈퇴로 힘들었던 시기에 고향인 인천에서 복귀할 수 있도록 당시 많은 분이 도와주셨습니다. 제게 고향에서 다시 운동장에 나갈 수 있게 해주신 분들에게 정말 감사했습니다. 또한 인천 시민분들의 고향에 대한 사랑도 큰 몫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Q. 고참이라는 위치에서 3년간 팀을 이끌어 오셨습니다. 직접 겪어보신 고참이라는 위치는 어땠나요?

어린 나이에 대표팀에 일찍 발탁됐고, 두 번의 월드컵에서 막내 급으로 출전을 했어요. 2년 전 인천에 왔을 때는 2002월드컵 멤버 형들과 함께해서 고참에 대한 생각이 많이 들진 않았습다. 그런데 올해 갑작스럽게 최고참이 위치가 되니 힘들더군요. 성적, 결과 그리고 화합까지 모두 고참에게 맡겨지거든요. 그렇기에 동계훈련 때부터 어떻게 하면 후배들이 따라올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결론은 제가 가진 색깔 그대로 표현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몸으로 대화하는 선수이기에 죽을힘을 다해 한다면 후배 선수들도 따라올 거라 생각했죠.

Q. 인천에서 계신 3년 동안 팀의 굵직한 성적이 나왔습니다. 각기 다른 의미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정말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1년 차 땀 좋은 선, 후배들과 함께 상위 스플릿에 진출했고, 2년 차 땀 초반에 힘든 시기를 겪으며 축구가 선수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올해는 초반에 모두가 불안해했고, 멤버도 많이 바뀌었죠. 하지만 ‘간절함’으로 후배들에게 운동하는 선배로 다가갔습니다. 부담 없이 운동하되, 승리에 대한 것을 항상 되새겼습니다. 비록 우리도 충분히 이길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지지 않는 법을 알려줬습니다. 지난 3년간의 일들이 모두 제겐 소중한 경험이고 또 다른 인생의 밑거름이 됐습니다.

Q. 등번호 10번은 어떤 의미였나요?

인천에 입단할 당시 감독님께 부탁해 10번을 받게 되었는데, 10번만큼의 역할을 하지 못한 것 같아 아쉬움이 남습니다. 좀 더 젊었을 때 달고 뛰었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큼니다. 10번이 주는 상징적인 의미가 큰데, ‘영원한 10번’이라고 항상 응원해주시는 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Q. 후배 선수들과 유소년 선수들에게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올 시즌 열심히 했다면, 다음 시즌에는 열심히 하는 것은 당연하고, 이젠 잘해야 합니다. 특히 올해의 간절함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인천은 정말 좋은 경기장을 갖고 있기에, 후배들이 이 점을 십분 활용하길 바라고, 팬분들께서도 후배들이 상대에게 기죽지 않는 경기를 펼칠 수 있도록 더욱 응원해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인천의 발전을 위해 유소년 선수들 역시 중요합니다. 최근 연이은 우승 소식을 들어 정말 기뻐했는데, 이들이 프로에서도 인천을 이끌어줘 시민구단의 자존심을 지켜주길 바랍니다.

Q. 끝으로 팬들에게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항상 감사하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이번에도 역시 감사하다는 말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힘들게 복귀한 지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인천 시민과 서포터분들이 힘을 주셔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축구를 시작한 인천에서 은퇴할 수 있게 되어 행운아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없더라도 후배 선수들이 열심히 잘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도 많은 분이 오셔서 운동장을 꽉 채워서 후배 선수들이 힘이 날 수 있도록 많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QR코드를 통해 모바일 기기에서 인터뷰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천수, 당신이 있어 행복했습니다

지난 2013년부터 현재까지 고향에서 마지막 불꽃을 태웠던 이천수가 축구화를 벗는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천수는 인천유나이티드를 향한 애정과 투혼으로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이천수가 3년 동안 인천에서 남겼던 발자취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2013년: 돌고 돌아 고향 팀에 안착하다

2002 월드컵 4강 신화 주역. 2006 월드컵 토고와의 조별리그 첫 경기에서 프리킥 골로 2-1 승리를 이끌었던 이천수. 그러나 구슬수가 많아 축구 인생은 평탄치 않았다. 2009년 6월 전남드래곤즈를 떠난 후 해외 무대에서 뛰었지만, 선수 생활 마지막을 K리그에서 끝내고 싶었다.

인천은 이천수에게 손을 내밀었다. 이천수도 고향 팀의 러브콜에 주저 없이 손을 잡았고, 선수 생활을 잘 마무리할 수 기회를 잡았다. 우려되는 점이 많았지만, 인천을 대표하는 스타였고 기량이 출중한 선수였기에 팬들의 기대치는 컸다.

이천수는 팬들의 기대에 보답하듯 특유의 승부욕과 빠른 발, 정확한 킥을 선보이며 인천의 돌풍을 이끌었다. 특히 5월 25일 부산아이파크와의 원정 경기에서 득점을 터트리며, K리그 복귀골을 신고했다. 당시 이천수는 뜨거운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기쁨을 만끽했다. 이후 이천수는 그 해 2골 5도움으로 기록하며, 인천의 스플릿 A그룹 진출에 크게 기여했다.

2014년: 리더로 성장하다

인천 복귀 이후 두 번째 맞는 2014시즌은 녹록하지 않았다. 당시 팀 내 최고 참 김남일은 전북현대로 이적했고, 설기현은 장기 부상에 시달렸다. 팀 성적도 2013년 스플릿 A 그룹에 진출했던 것과 달리 하위권을 맴돌았다.

이천수가 실질적인 리더가 될 수밖에 없었다. 그는 스타 의식을 버리고, 희생하며 젊은 인천 선수단의 중심이 되었다. 인천이 갖은 어려움 속에서도 K리그 클래식 잔류에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다. 비록 1골 3도움에 그치며, 2013년보다 공격포인트는 줄어들었으나 리더로 거듭난 이천수의 존재만으로 절대 폄하할 수 없었다.



2015년: 인천과 함께 비상(飛上), 박수 받으며 은퇴하다

인천의 2015년은 드라마였다. 팀 내외적으로 많은 악재가 겹쳤고, 이로 인해 챌린지 강등이 유력한 후보 0순위로 꼽힐 정도였다. 그러나 인천은 모든 예상을 깨고, 리그 7위는 물론 FA컵 준우승을 이뤄냈다. 비록 마지막 고비를 넘지 못했으나, 인천의 저력을 다시 한 번 보여준 멋진 시즌이라 할 수 있다. 이천수도 팀 내 최고참으로서 제 역할을 해냈다. 나이가 많다는 편견을 깨기 위해 한 발 더 뛰었고, 희생정신을 발휘해 선수들의 투쟁심을 일깨워 줬다. 인천의 늑대 축구가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것도 선수들 가슴 속에 투혼을 새긴 이천수의 숭선수범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김도훈 감독도 이천수의 활약에 고마워할 정도다.

이천수는 올 시즌 종료를 앞두고 은퇴를 선언했다. 인천을 대표하는 스타가 떠나기에 아쉽지만, 팬들은 3년 동안 희생해준 이천수에게 성공적인 앞날을 기원했다. 비록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인천과 대한민국 축구에 큰 기쁨을 준 이천수. 당신이 있어 정말 행복했습니다.



“인천은 나의 자존심!”

인천유나이티드가 올 시즌 예상을 뒤엎고 돌풍을 일으킬 수 있었던 건 팬들의 사랑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팬들도 인천의 투혼과 열정에 행복한 시즌을 보냈다. 특히 남편과 함께 인천을 응원하고 있는 팬 오수진 씨. 축구라는 매개체로 더욱 달달한 결혼생활을 보내고 있는 오수진 씨를 만나보았다.

Q. 안녕하세요.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인천을 사랑하는 20대 후반 여자두루미 오수진입니다. 하는 일은 선학동에서 남편과 함께 고깃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Q. 올 시즌 인천은 정말 행복한 시즌을 보냈는데, 팬 입장에서는 어땠나요?

인천 팬으로서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얼떨떨했던 시즌입니다. 시즌 초반해도 강등후보였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투지와 열정으로 뛰는 선수들 덕분에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Q. 올 시즌 가장 기뻐던 순간을 꼽자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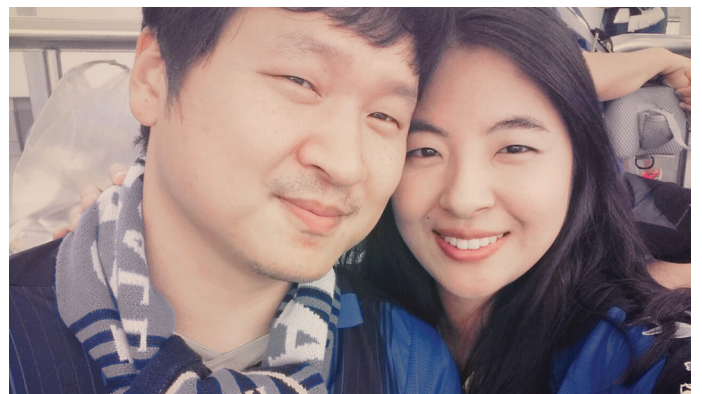
가장 기뻐던 순간은 FA컵 4강에서 전남을 꺾고 결승전에 진출했을 때입니다. 결승전 그날까지 기대감과 설렘으로 매일 행복했습니다.(웃음)

Q. 반대로 아쉬웠던 순간은 언제였는지요?

이번 시즌에 FA컵 결승을 포함해 한 번도 FC서울을 이기지 못한 것이 가장 아쉽습니다.

Q. 인천이라는 매개체로 부부의 인연을 맺고 계시는데, 남편분은 물론 서로 인천을 좋아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2012년에 데이트 코스로 인천축구전용경기장을 방문한 것이 계기가 되어 ‘비상’이라는 다큐멘터리도 보게 되었고 인천의 스토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응원가를 함께 따라 부르면서 인천의 매력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결혼 후에는 축구에 대한 대화를 많이 하며, 부부싸움을 하더라도 축구가야기를 하며 자연스럽게 화해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부는 축구로 더욱 끈끈해지고 있습니다.



Q. 올 시즌 MVP를 꼽자면 누구인가요?

모든 선수들이 MVP라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하나의 팀으로 뭉쳐서 승리를 위해 뛰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Q. 2016시즌 인천에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많은 시민분들이 인천축구경기장을 찾을 수 있도록 홍보가 많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FA컵 결승전 당일 인천 팬들이 보여준 응원의 열기는 마치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에 와 있는 듯한 착각이 들었습니다. 관중들이 뻥뻥이 모여 있으니 경기에 집중도 더 잘되었습니다. 앞으로 인천을 사랑해주는 팬들이 더욱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Q. 마지막으로 인천 선수들에게 응원의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매 경기 최선을 다해 뛰는 모습에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행복한 한 해를 보냈습니다. 내년 시즌에도 부상 없이 인천의 새 역사를 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팬들의 응원 속에서 더 멋진 모습 많이 보여주세요.(웃음)





안녕, 이천수

#Goodbye No.10



2000



2013



- 2008

- 2015



Play,
Together!

인천유나이티드 프로축구단 공식후원사

Premier
Sponsor



Official
Kit Supplier



Official
Sponsor



Official
Partner



『 인천유나이티드 시즌권으로 축구도 보고~ 식사도 하고! 』

맛있는 바닷바람이
느껴지는 그 곳, **드마리스**
Premier Buffet Restaurant

기쁨과 행복이
만들어지는 곳, **프라임 마리스**
Enjoyable Place for you



드마리스
(인천점)

프라임마리스
(부평점)

시즌권 및 아카데미 회원증 소지자 : **50%** 할인

동반 5인까지 : **30%** 할인

경기당일 티켓 소지자 : **10%** 할인

드마리스 인천점 -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644-4 지젤타워 3층

프라임마리스 부평점 - 인천광역시 부평구 청천동 386번지 아이즈빌아울렛 2층

※평일·공휴일 상관없이 할인 혜택이 적용됩니다.

※12월 한 달만 할인 혜택이 제외됩니다.

invitation to
ELENA KITCHEN



70여 가지 음식과 에드워드권의 전문 요리를 맛볼 수 있는 엘레나키친!
즉석 파스타와 스테이크, LAVAZZA 커피도 만나보세요~

엘레나 키친 with
(승의점) 에드워드권

시즌권 및 아카데미 회원증 소지자 : **20%** 할인

경기당일 티켓 소지자 : **10%** 할인

엘레나 키친 승의점 - 인천광역시 남구 석정로 51 홈플러스 지하 3층

※시즌권 및 아카데미 회원증은 평일·공휴일 상관없이 할인 혜택이 적용됩니다.

발행일 2015년 11월 28일 / 발행처 (주)인천유나이티드 인천광역시 중구 참외전로 246 인천축구전용경기장 내 3층

전화 032-423-1500 / 홈페이지 www.incheonutd.com / 기사 우승민, 박영진 UTD기자 / 사진 이상훈 UTD기자 / 디자인 (주)에스이엠(www.semsports.co.kr)

* 이 책자에 게재된 글, 사진, 도표 등 모든 기사의 판권은 본사가 소유하며 발행인의 허가 없이 그 내용을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할 수 없습니다.